

### 서거석 교육감,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학교 방문

# ‘우리는 누구인가? Who We Are?’

서거석 교육감이 19일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학교를 찾았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아중초등학교(교장 조연순)를 방문해 ‘우리는 누구인가? Who We Are?’라는 주제로 진행된 3학년 수업을 참관했다.

전북미래학교인 아중초는 지난해 9월 IB 관심학교로 지정돼 올해부터 IB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날 수업은 김태화 교사와 학생들이 전자칠판과 태블릿PC를 활용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두고 묻고 답하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교육감은 수업 참관 후 조연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IB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IB는 비영리교육재단인 IB본부(IBO)가 개발해 운영 중인 교육이다. 이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수행평가, 토론, 논술 방식의 과정 중심 교과과정을 지향한다.

특히 IB 단계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순으로 지정된다. 관심학교와 후보학교를 거쳐 인증학교로 등록되면 IBO에서 IB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국내에는 43개의 인증학교가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IB 관심학교로 등록된 아중초는 ‘AIB(아중초의 IB여



19일 국제 바칼로레아 운영학교인 전주아중초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국제 바칼로레아 운영 전주아중초 3학년 수업 참관 태블릿PC 활용 유사성·차이점 두고 문답 방식 진행 “올해부터 IB 교육 본격 추진... 수업 개선 적극 지원”

행) - 아중IB : 아중의 빛, 내일을 만든다’라는 전북미래학교 프로젝트

와 IB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수업 혁신과 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IB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B 교육을 추진하겠다”면서 “창의적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다양화로 수업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검정고시 시험장 6개 권역으로

기존 시험장 전주에 4곳만 운영... 응시자 접근 편의 높여  
전북자치도교육청, 22일 시험장소 공고... 시험은 4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시험장을 6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정고시 시험장은 전주에 4곳만 운영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제1회 검정고시부터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으로 시험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1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결과 권역별 지원자는 전주 531명, 군산 126

명, 익산 145명, 정읍 85명, 남원 40명, 진안 24명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 지원자를 포함한 총 지원자 수는 973명이다.

시험장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은 4월 6일 치러진다.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이시기 교원인사과장은 “검정고시 시험장 확대 운영은 응시자들의 시험장 접근 편의 제공과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실현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등·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교육과 인성인권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 전북교육가족 합창단원 25일까지 공개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가족에게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 합창단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가족 합창단 운영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교육가족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다.

이는 교육청과 도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과 합창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파트 등이다. 합창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입단원서를 작성해 우편(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 또는 이메일(seejk35@jeedu.kr)로 신청하면 된다.

합창단원은 오디션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오디션은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글로벌대학30 진입 내부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글로벌대학30 진입을 위해 내부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18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홍기 글로벌 추진본부장, 교무위원, 교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우석대는 작년 12월 글로벌대학30 추진을 위한 교무위원 워크숍과 대학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홍기 글로벌 추진본부장은 수소 분야를 비롯해 우석대학교가 축적한 역량과 자산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 더 생산적이고 밀도 높은 계획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노준 총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뿐만 아니라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대학30의 혁신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군장대학교와 함께 혁신기획서를 2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문화체육관광 분야 창의 콘텐츠 제작 선도

### 전주대 ‘시너지 랩’ 개관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9일 진리관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선도할 ‘C-nergy Lab(시너지 랩)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진배 총장, 박균철 교육부총장, 윤찬영 대외부총장, 이해원 특임부총장과 인문콘텐츠대학 교수와 직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시너지 랩은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콘텐츠를 기획·생산하는 융복합 창작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 구축된 공간으로, 창작 및 제작 스튜디오, 프로젝트 룸, 애트머스 사운드 스튜디오, 네트워크 라운지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C-nergy Lab의 C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코오퍼레이션, 콜라보’라는 단어의 첫 글자로, 콘텐츠 융복합을 의미하며, 뒤에 Energy를 붙여 창의적인 작업을 이뤄가기 위한 에너지를 강조했다.

시너지 랩에서는 공간별로 특화된 주제에 맞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창작스튜디오에서는 기획 회의와 드로잉 수업을 위한 작업실, 제작 스튜디오에서는 2D, 3D 그래픽



19일 전주대학교 진리관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선도할 'C-nergy Lab(시너지 랩)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픽 구현에 필요한 장비 활용 작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웹툰만화콘텐츠학과와 실습 작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 룸과 네트워킹 라운지는 콘텐츠와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 간의 협업 아이디어 기지로 활용되며, 애트머스 사운드 스튜디오는 객체 기반 3D 사운드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음향을 제작한다.

인문콘텐츠대학 안정훈 학장은 “시너지 랩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실험할 기회를 제

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인문콘텐츠대학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K-컬처만의 매력을 엮어 웹소설, 웹툰, 영상, 사운드 등의 시대에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콘텐츠대학은 7개 학과(학부)와 학과 간 다양한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으로 학생 개인형 맞춤형 커리어를 제공하며, K-콘텐츠의 발굴 제작을 위한 창의적인 인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올해 아세안의 전망 영상으로 시청 가능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동남아 지역동향 설명회 유튜브 공개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이하 전동연)가 한국동남아학회, 서강대 동남아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제6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한 유튜브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대중의 이해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사전 등록자가 100여 명에 육박하는 관심을 보였다.

유튜브 채널명 ‘전북대동남아연구소 JISEAS’, ‘제6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를 검색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아세안의 2023년 동향 및 2024년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동연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동남아 각국의 동향을 강의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설명회를 개최한 뒤 녹화본을 별도 편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왔다.

전제성 소장(한국동남아학회회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전국 각지 청중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대중의 이해 높이는 설명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에듀테크 그림책 1일학교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이달 19일부터 12월까지 2021년 불로나라가치상 논픽션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박교 작가의 ‘에듀테크 그림책 1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2월부터 전주·완주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및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총 66개의 기관, 3300여 명이 참여한다.

박교작가의 ‘모모모모’ 등 4권의 그림책을 수록된 원화 71점을 도슨트 해설과 더불어 감상하고, 스마트칠판, 태블릿 등 ICT기기를 이용한 에듀테크 독서활동 체험으로 진행된다.

특히 체험형 동화구연은 전주에서는 처음 도입한 콘텐츠로 5면에 3D화면을 송출하며, 아이들이 가상현실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학폭 예방·위기학생 지원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까지 학폭 업무 담당교사 등 대상 연수  
학폭 전담조사관 등 통해 피해학생 보호·치유 윈스톱 지원  
병원형 위센터·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사업 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1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등·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교육과 인성인권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 교육 강화 방안, 생명 지킴이 교육 확대 운영,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에 대해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을 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관계개선조정지

원단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윈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치유·생명지킴이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위기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비, ADHD 진단 및 치료비, 자해전여른 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고위기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형 위센터(전북대, 원광대)와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학교내 정서 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며 “사례별 위기 학생 지원 방안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정책을 촘촘히 보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점검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22일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  
유치원·초등·특수학교 442개 학교 622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4월 22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2024학년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중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전자·운전자·승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

부 △안전운행기록장치 장착(권장사항) 여부 △차량 내 운행기록 장치 작동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확인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 실태 확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